

發刊辭

孔子께서는 家族制度를 모든 社会的 政治的 生活의 基本이라고 하였다.

家族意識과 家風은 東洋人의 精神生活을 支配하는 基本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人類는 어느 때 어떠한 形態로 이地球上에 태어났는지는 오늘날의 科學文明으로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人間은 長久한 세월동안 萬物의 靈長으로 支配의 位置에서 人類의 歷史와 文化를 創造하면서 살아왔다.

人間은 原始時代로부터 점차로 進步 發展함에 따라 生活形態도 分散生活에서 集團群居生活로 변천하였고 集團群居社會가 部族社會로 部族社會가 發展되어 部族國家를 形成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國家形成의 變遷史라 하겠다.

人間은 集團群居社會가 形成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共同生活을 當爲하게 되어 그러한 發展과정에서 國家의 民族意識이 싹트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長久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人口가 팽창함에 따라 人間社會는 점차로 복잡한 度가 加增하게 되자 種族과 血緣에 따라서 協同精神을 갖게 되었으니 이것은 自然的인 結果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社會도 이러한 發展과정을 거쳐 統一新羅 高麗時代에 是 敎思想이 當時의 國民思想을 支配하게 되었는데 李朝時代에 이르러는 儒敎를 國敎로 삼아 忠, 孝, 烈, 思想을 國是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는 東方禮儀之國임을 世界萬邦에誇示하고 있다.

李朝時代에 이르러 우리 民族은 崇祖思想이 고조됨에 따라 氏族觀念이 더욱 공고하여 졌으며 따라서 우리 民族은 世界에서 氏族觀念이 가장 強하다고 볼 수 있다.

人類歷史는 아득한 옛날부터 大自然의 흐름 속에서 自然的으로 創造되어 가고 있다. 우리 民族 역시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民族이 文字로 歷史를 기록하기 이전의 歷史는 傳說이나 口傳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실하고 확실성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族譜를 살펴보면 士大夫 집 족보는 國史와 차이점이

별로 없으나 數多한 庶民層의 족보는 年代는 물론 史蹟들이 사실과 틀린점이 許多하여 앞으로 是正 研究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各姓氏의 祖上들은 찬란한 歷史의 창조자며 後世에 모범될 만한 史蹟들을 많이 남겼으나 政亂과 兵亂으로 因하여 소멸되어 지금에 전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한 일이다.

여러 姓氏中에는 上系를 전연 알지 못하는가 하면 10餘代를 獨身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다. 事實이 그러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록이 옳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남겨 주고 있다. 이는 祖上들이 系譜에 등한하여 기록을 남겨 주지 않았거나 戰亂으로 인하여 燒失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燒失된 것이라면 不可抗力이려니와 만약 祖上들이 기록을 남겨 주지 않았다면이 얼마나 유감된 일이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되겠다. 國史나 民族史 人類史를 研究하는데 根幹이 될 찬란한 우리 家門의 氏族史를 研究하고 더욱 發展시켜 주어야 하겠다.

本書는 우리 洪姓을 中心으로 한 家門의 찬란한 모든 史蹟을 기록에 남기도록 體系있게 편찬되어 있다.

우리 氏族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서적이라고 믿어지며 自負하는 바이다.

本書의 편찬내용은 첫째, 自己 祖上の 碑文을 비롯하여 祠宇, 書院, 墓所 등을 写真으로 實寫하였고 둘째, 自己 家門에 對한沿革을 비롯하여 世系表와 祖上에 史蹟을 기록하였으며 셋째, 行列分布・祖上の 墓所 및 祭享・門中の 動産・不動産에 對한 財産目録, 備忘録, 宗親들의 各系 進出狀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錄하였다.

그 밖에도 의례준칙에 의한 冠, 婚, 喪, 祭法과 祭物陳設圖記, 祝文, 紙榜 書式에 이르기까지 參考로 첨가하였다.

本書는 自己 當代의 便覽이 될뿐만 아니라 後孫에게 寶鑑이 되도록 精誠을 다하여 編著한 것이다.

끝으로 이를 편찬함에 있어 高明하신 여러 學者를 비롯하여 門中代表 諸賢과 編輯에 勞苦를不辞하고 애써주신 實務陣의 공헌에 對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本書가 宗親 諸賢의 生活 營爲에 좋은 敎養書가 되었으면 多幸으로 여기는 바이다.

1979年

南陽洪氏大宗中央宗會

會長 洪鍾文

머릿말

本來 門事를 宗事라고도 하는데 이는 宗親(血族)에 關한 모든 事業의 總稱이다.

元來 임금의 親族을 宗親이라 하여 李朝 때에는 宗親府라는 관청을 두어서 王室의 世譜를 掌管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現社會는 民主社會인즉 民間에 있어서도 누구나 같은 氏族間에 宗親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같은 血族끼리 모이는 團體를 宗親會라고 하여 門事를 推進하게 되었다. 그리고 잔혹 花樹會라고 한다.

宗事의 涵 뜻은 忠孝를 격려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된 道理와 家庭의 參與 意味를 깨우쳐 和睦하고 믿고 서로 尊敬하며 살수 있는 社會를 이룩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時代에 따라 各各 다른 습관과 風俗 속에서 살고 있다. 어제의 現實은 이미 오늘이나 來日이던 다시금 새로운 現實로 바뀌지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時代, 모든 社會를 초월해서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人間의 德性이며 모든 사람이 世上을 살아가는 基本秩序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人間의 社會的 질서를 倫理라고도 한다. 人間觀, 社會의 理致를 밝힌 그 倫理 가운데 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본다. 家族制度로부터 시작된 忠, 孝, 思想의 精神文化는 항상 家庭을 中心으로 집착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人間이 偉大 海질수록 그의 精神과 念願은 家族에서 일가門中으로 번져가며 일가門中에서 다시 鄉里로 社會로 또는 國家로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家族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일가門中은 고사하고 어찌 鄉里를 생각할수 있으며 鄉里를 모른채 하는 사람이 어찌 社會를 걱정하며 國家를 근심할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家族을 보살핀 다음에는 온 精神과 모든 執念이 먼저 門中으로 쏠리는 것이 精神의 活動의 첫 段階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家庭을 애기는 마음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教養과 雅量이 부족해서는 아니되며 아무리 門中의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고 싶으되 이에 必要한 知識이 없이는 그 成果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

世界의 思潮는 義理에 인색하던 個人主義에서 다시 家族主義로 변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特別 門事(宗事)에 對한 熱意가 漸次 드높아지는 이 때에 祖上의 崇拜를 民族信仰의 核心으로 하는 우

리는 모름지기 祖上의 遺業을 이어받아 옛것을 알고 祖上을 敬虔하게 섬기며 良俗을 잘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곧 民族文化를 保存 發展시키는 捷徑임을 알아야 할 것임니다. 이 冊은 우리 祖上들이 지켜내려온 冠婚喪祭의 札를 한눈에 보고 읽어서 알수 있게 엮은 冊입니다.

웃어른을 恭敬하고 子孫을 사랑하며 이웃을 돕는 우리의 고운 風俗을 지난날의 婚禮와 祭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想起할 때 이 冊의 出刊이 우리 固有文化의 繼承에 一片이나마 보탬이 되고 社會醇化에 一點이라도 寄與한 것을 믿으며서 監修에 애써주신 東國大學校 洪淳鉉 教授任께 感謝를 드립니다.

高潔한 人間이 사는 곳에 歷史와 文化는 찬란한 것이니 刊行의 머릿말 뜻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南陽洪氏大宗中央宗會

常任理事 洪俊杓 謹識